협오시설 쓰레기장을 '찾고 싶은 곳'으로

밤실마을 주민들의 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는 물론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던 공동쓰레기장을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디자인해 찾고 싶은 곳으로 바꾸는 '공동쓰레기장 대변신 프로젝트'가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진행된다. 지난 8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야외공연장에서 '2008 밤실마을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체육대회가 아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보고회.

주거환경 개선, 아이디어 내고 사업비 모아

북구청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지난 4월 광주시 북구청이 지원하는 '2008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인 공동쓰레기장 대변신 프로젝트에 두암주공아파트 4단지가 선정된 후 공사를 앞두고 첫 사업보고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그리고 새롭게 바뀔 공동쓰레기장의 디자인이 공개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두암주공4단지 주민과 전남대 조경설계연구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900여명이 참석해 20여 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아이디어를 모았다. 주민들은 지난 2년동안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 1천만원을 프로젝트 사업비(총 4천만원)로 선뜻 내놓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쓰레기장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동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장을 분리한 것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장의 환기를 잘 시키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는 돌담형 벽체를 사용할 예정이며 바닥에는 청소할 수 있는 수도시설과 방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또 쓰레기장이 비를 맞지 않게 설치한 천장 위쪽에는 식물을 심고, 쓰레기장 주위에는 갖가지 향기를 내뿜는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장도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혐오감이 들지 않는 '찾고 싶은 쓰레기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공동쓰레기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번갈아가며 지켜 사용방법과 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을 알려주게 된다. 공동쓰레기장은 오는 12월 초 완공될 예정이다.

송승준(51) 두암주공3단지 임차인 대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거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모범이 돼 전국 공동쓰레기장이 호감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난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야외공연장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쓰레기장 대변신 프로젝트' 사업보고회가 열렸다. 혐오 시설인 공동쓰레기장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바꾸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달 초 완공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구 여성합창단 공연

오늘 문예회관 대극장

동구여성합창단 제12회 정기공연이 1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자치단체 합창단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세계적인 불가리아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각종 공연을 통해 빼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동구여성합창단은 이날 '백합화(박지훈곡)', '진달래꽃(박지훈곡)', '꽃타령(허걸재)' 등 한국적인 감성과 정서가 담긴 음악을 선보인다.

아울러 'Mozart Coronation Mass(대관식 미사)' 등 고품격 클래식도 공연도 펼쳐진다.

지휘는 의과대학 출신 지위자 변욱씨가, 반주는 박수영씨가 맡는다. 합창단과 협연하는 불가리아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현대 불가리아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훌륭하게 연주해내 세계 각국의 음악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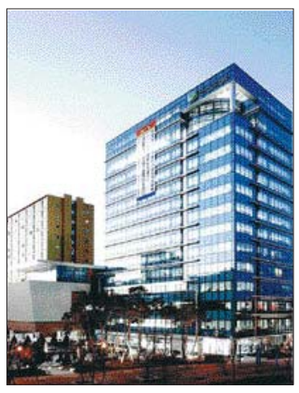
무진로 등 제설자재 배치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除雪)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무진로와 빛고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량, 고가도로, 경사지 등 515곳에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배치했다.

이와 함께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집중 점검해 폭설기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건축상 금상 토공지사 사옥



광주시는 제12회 광주시 건축상 금상 수상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건축사가 설계한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사 사옥(광주시 서구 치평동·사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금상 수상작은 건축물에 전시·휴게 공간의 세심한 디자인, 주변 건축물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공간을 배치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은상 수상작으로는 ㈜맥스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임경희 건축사가 설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북구 오룡동)과 ㈜푸름건축사사무소 김정아 건축사의 '상무스타타워'가 각각 선정됐다.

동상은 ㈜주 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창율 건축사의 '노블모터스(주)전시장'(서구 쌍촌동) 과 '디지털컨버전스 센터'(북구 오룡동), 백두건축사사무소 강연심 설계사의 '하이메디컬 센터'(광산구 신가동)가 차지했다. 수상작은 오는 13일~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에 국산밀 특성화단지 조성

농진청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 사업' 선정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서 광주시가 '웰빙잡곡 프로젝트 추진 시·군'으로 선정돼 국산밀 특성화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는 9일 "내년부터 2년동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7억5천만원의 웰빙잡곡 특성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우수 품종과 재배·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측은 중앙과 지방, 농협, 업계, 학계간 네크워크를 구축해 밀 산업을 클러스터화, 국산밀을 보리의 대체작물로 국산밀을 육성할 방침이다.

조 소장은 "광주지역은 밀 재배 가능 면적이 1천400ha에 달해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면 해마다 22억5천만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되고 외화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주산지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의 여건에 맞는 주력품목을 선정, 기술과 교육·예산·전문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후식기자 who@

상무시민공원서 '농업인의 날' 행사

광주시와 광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서 농민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광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연합회, 농민회 등 5개 단체가 주관한다.

'우리의 소중한 농업·농촌, 도시민과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벼 품종·브랜드 및 친환경 농자재,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 등이 진행된다.

또 벼 탈곡과 즉석 도정, 떡메치기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해 도·농한마당 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소비자를 위한 이벤트로 찰보리쌀(1kg) 400개를 관람객들에게 선착순 배포한다. 유공 농업인 14명에게는 광주시장상 등이 주어진다.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켜온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남로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

광주시는 최근 남광주4거리~백운광장에 이르는 대남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8개 구간 중 북문로(동림동 장애인복지회관~동운고가)를 제외한 7개 구간 주요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무인단속이 강화된다.

광주지역에는 서문로(광주대 입구↔백운광장 4.6km)와 죽봉로(동운고가↔농성광장 5.8km) 등 모두 8개 노선, 47.2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r